

“간화선 속에 심리치료 효과 들어있다”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이필원 교수 분석 발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평가 받는 간화선의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이필원 동국대 파라미터칼리지 교수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인도철학의 명상심리’ 학술세미나에서 ‘간화선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간화선으로 필두되는 선심리치료의 영역을 고찰했다.

이 교수는 먼저 간화선 관련 논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00년 이전 간화선 논문은 연평균 1편이 채 되지 않지만 2003년부터 큰폭으로 증가해 2005년 이후에는 매년 15.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응용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표된 간화선 관련 논문은 198편에 달한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중 치료효과나 체험에 대한 분석적인 논문은 6편에 불과하다”며 “192편은 특정인물의 선사상을 규명하거나 선문헌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심리학적 방법을 통한 심리치료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며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적 효과성에 대한 논문은 국외에서도 드물어 1979년 MBSR프로그램 개발 이해 불교명상의 심리치료 효과는 남방 위빠사나 수행 일련도로 연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를 간화선이 갖고 있는 내적 한계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간화선은 화두를 명확히 타파한 스승이 없이는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2000년 이전 간화선 논문 1년 1편 안돼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15.3편 발표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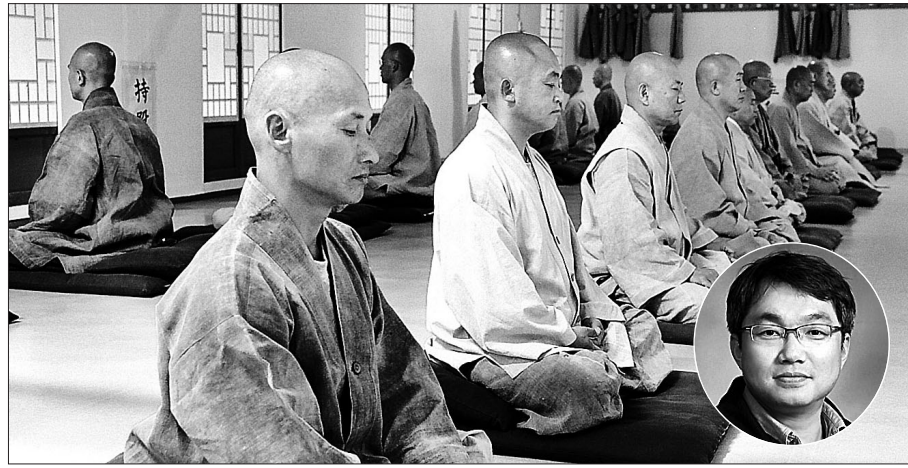
지금까지 발표된 간화선 논문 총198편

“스승과 제자가 일대일로 화두를 풀고 점

점해 주어야 하기에 대중화 되기에 제약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 효과는 탁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선행 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간화선을 통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짜증과 분노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보는 것이 도출됐다”며 “간화선의 화



이필원 동국대 교수(원안)는 발표에서 간화선의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가 분별을 끊어주는 기능이 있고,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부터 생각을 자각해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불건강함”이라며 “심리학의 관점에서 간화선을 잘 살핀다면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인도철학회(회장 정성석)가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안성두)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문진건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학과 교수

의 ‘트리구나(Triguna) 설의 심리학적 적용문제’ △박기열 동국대 박사의 ‘락(樂) 따위의 심리현상에 대한 불교인식론의 논증’, 김재경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유식학적 기반으로 본 명상심리 고찰’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불교대지 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심준보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의 ‘쉬바파 일원론의 명상수행 체계 연구’ △안필섭 동국대 불교사학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요가경의 수행체계로서 대지명상의 범위와 효용성’ 등이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포항 보경사 금당인 적광전 보물 지정

조선 숙종 때 중건...정교한 사자상 조각 등 가치 높아

문화재청은 경북 포항시 보경사의 금당인 적광전(寂光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68호로 지정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적광전(오른쪽 사진)은 조선 숙종 3년(1677)에 중창한 것으로 추정되며,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표계(多包系·기둥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양식) 맞배지붕 건물이다. 신방목(信防木·문기등 밑에 놓이는 부재)은 보통 등글개 만들고 태극문양 등을 새기는데 적광전 신방목엔 사자상이 조각돼 있다.

문화재청은 “초석 등은 전형적인 통일신라기 건축 기법을 보여준다”며 “신방목은 국내에선 유례가 드물고 조각도 정교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표계 맞배지붕 건물에선 잘 보이지 않는 측



면 공포가 있고, 다표계 건물에서 흔히 보이는 우물 정(井)자 모양 천장인 우물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드러낸 연배천장으로 처리한 점도 특징이다.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25년(602) 진(陳)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 법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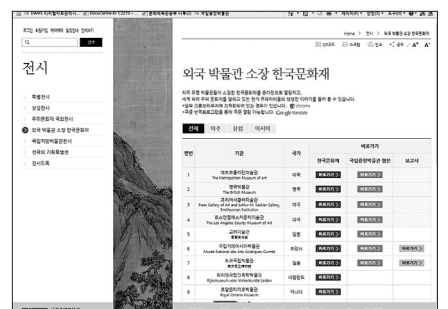
“외국 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재 한 눈에”

국립중앙박물관, 7개국 24개 박물관 1만점 바로 확인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연나)은 3월 30일부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프랑스 국립기메아시아박물관 등 7개국 24개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 온라인 공개 DB 연계 페이지를 박물관 누리집(http://www.museum.go.kr)에 마련,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페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전시’ 메뉴 내 ‘외국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에서 접속할 수 있다.

이 메뉴에 접속하면 각 박물관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1만 여 점의 우리 문화재를 검색 과정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의 전시·활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웹진인 뮤진(MUZINE)에 소개된 현지 큐레이터들의 인터뷰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연결했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출간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전자 파일(PDF)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외국 박물관이 소장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종교 배타성, 권력지향서 비롯”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화쟁아카데미서 지적

“개신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배타주의로 우경화 파트너가 됐으며 군사정권 하에 미국으로부터 특혜 받는 종교로 인식됐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실장> “가톨릭은 스스로의 천사화에 빠지고 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가 3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서 개최한 종교포럼 ‘종교를 걱정하는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에서는 개신교의 배타주의를 통한 각 종교인들의 성찰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실장은 “개신교의 배타주의와 타자의 악마화” 발표에서 “개신교가 근대 한국의 역사 속에서 타자를 배척하고 악마가 누구인지를 지목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진호 실장은 “유럽에서는 제국주의의 몰락과 함께 기독교의 배타주의도 반성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한국의 개신교는 도리어 배타주의의 폭력성이 가장 잔혹하게 발현됐다”며 “개신교는 한국전쟁 후 미국이 주도하는 우경화의 정치적 파트너로 활약

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신교의 교세는 놀랄 만큼 확장됐고 군사정권 아래 개신교는 정부보다 더 강한 존재인 미국으로부터도 특별한 수혜를 받는 종교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개신교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배타성에 대한 대상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개신교의 배타성은 시대에 따라 불교나 무속신앙에 대한 증오로

개신교 배타주의의 관련 성찰 잇달아

“불교 대응은 냉소와 수동적 반응 뿐”

혹은 성소수자나 무슬림에 대한 증오 등으로 발현되고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더욱 퇴행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실장은 끝으로 “예수와 바울은 배제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체제와 싸웠으나, 현대의 정통파 기독교는 예수와 바울이 아닌 그들이 싸웠던 체제를 답아가고



3월 28일 열린 화쟁 아카데미에서 조성택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있다. 오늘날 한국개신교를 걱정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논평에서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개신교가 타자를 악마화한다면 가톨릭은 자신을 천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원수를 사랑 하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의 교인이 왜 악마를 만들어내는지 묻고 싶다”며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격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성택 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는 “배타주의의 핵심이 중요하다면, 증오의 이면에는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근대 한국에서 부정적 영향만큼이나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며 “이에 반해 불교가 보여준 것은 냉소와 수동적인 반응 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체성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택 대표는 “불교는 배타주의를 전면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주류종교로서 기능하지 못한 탓이 큰 것”이라며 “권력과 관계한다면 불교도 배타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권위와 권력은 다른 의미로 불교 내부적으로 종교적 권위가 떨어지고 많은 승단 내의 문제들을 세속법에 기대어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며 “세속법으로서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역으로 종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화쟁아카데미는 4월 25일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의 ‘가톨릭의 권위주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070)8872-2023 노덕현 기자

문경 봉암사 등 흰개미 조사 착수

문화재청 5개년 계획 마지막 단계...충청·경북 9개 사찰 및 63개소

여름철 본격적인 흰개미 활동을 앞두고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예방 및 사전조치에 들어간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기관인 ‘삼성 탐지센터’와 공동으로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2014년까지 258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63개소를 끝으로 중요 목조 문화재 총 321개소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이번에 흰개미 조사 대상은 문경 봉암사를 비롯해 김천 직지사, 예천 용문사, 영주 무량사, 홍성 고산사, 경산 환성사, 부여 성영사, 청도 대바사 등 9개 사찰을 포함한 63개 목조문화재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흰개미 탐지는 흰개미 탐지견이 서식지를 탐지하면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팀이 내시경 카메라 등 검측 장비로 흰개미 서식 여부와 서식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덕현 기자

靑雲天氣轉換秘法 (청운천기전환비법)

한국풍수지리사상 처음으로 조상 묘(墓)의 수맥파를 이장(移葬)없이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전환시키는 청운천기전환비법(靑雲天氣轉換秘法) 탄생(誕生)!

조상의 묘(墓)로부터 음기(陰氣)의 수맥파가 자손의 혈액(血脈)으로 흘러 냉기(冷氣, 저체온)를 유발시켜 각종 암, 우울증, 정신분열, 빙의, 성인병등 난치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집안에도 음기(陰氣)인 유해파를 생기(生氣)로 완전히 전환(轉換)시켜야 보다 빠른 치유와 사업성취가 가능(可能)하다는 것이 소승(小僧)의 오랜 시험(試驗)으로 입증(立證)되고 있습니다.

선친이나 자매, 형제 중에서 같은 암(癌)이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사업부진, 가정불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조상의 묘(墓)나 본인이 직접 수맥파 검사를 받으셔서 (현장 방문없이 전화상담으로도 확인가능) 조상묘(7대까지)의 백골(白骨)에서 자손의 혈액(血脈)으로 흐르는 수맥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파로 인한 음기(陰氣)의 조상의 묘(墓)를 이장(移葬)없이 현장에서 즉시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모시고, 가족건강과 가정평화를 이루시고 조상(祖上)께 효도(孝道) 하십시오!

건물, 가정의 수맥파도 현장에서 100% 차단!

만약 당신이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미 병(病)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큼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번지 / 전화 031-595-8767
善財寺 靑雲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중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 무선설비기사 |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